



조윤주

1995.05.22 (만 25세)
010-4884-9553
dbswnek26@gmail.com
<https://yoonju95.github.io/yoonju>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학력사항

인천대학교
디자인학부

2014.02 - 2019.02
졸업

강서고등학교
인문계

2011.02 - 2014.02
졸업

경력사항 (총 2년 4개월)

(주)제이에스티나
플랫폼팀 플랫폼개발파트

2021.04 - 2021.05

Git과 Sourcetree를 이용한 버전 관리를 하며 js 파일 관리 및
자사몰 메인페이지 및 브랜드 페이지 추가/수정 작업
매주 사내몰의 이벤트와 기획전을 운영/개발 어드민 페이지에 업로드하고 관리
내부 기획자, 외주 디자이너, 외주 개발자와 소통하며 작업
-간단한 링크 연결이나 쿠폰/포인트 버튼부터
개발과 협업해야 하는 '출석체크' 등 작업

(주)맑음
퍼블리싱팀

2018.08 - 2020.11
퇴사

웹 구축 퍼블리싱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담당
웹 기획, 웹 디자인, 개발, 유지보수 팀과 협업

ftp서버 혹은 svn 형상관리 툴로 php 및 asp환경에서 작업
HTML, HTML5로 웹 마크업 및 CSS, CSS3, jQuery, JavaScript를
이용해 웹구축
cafe24 쇼핑몰로 쇼핑몰 구축(반응형, pc, mobile)및 유지보수
사내 유지보수 건으로 wordpress 수정 및 콘텐츠 구축
디자인, 개발팀과 연계하여 자체 웹 템플릿 구축
디자인팀과 협업하여 웹 표준화 작업

자격증 및 교육활동

하이미디어학원(강남점) 교육이수
UX/UI 웹디자인 6개월 과정

2018.02 - 2018.07

웹디자인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2018.06 취득

자기소개서

사실 저는 생각과 걱정이 많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기에 3남매 중에 가장 공부를 못하고 책상에서 집중을 못 하는 학생으로 불렸습니다. 그런 제 인생의 전환점은 항상 새로운 환경으로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비평준화인 동네에서 높은 수준의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성적을 올렸고, 부담스러운 학원비에 말도 못했던 입시 미술학원을 주변의 도움으로 늦게나마 공부와 미술을 병행하며 준비했습니다. 생각과 걱정이 많고 길었기에 수많은 고민과 걱정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습관과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능력에 가장 필요한 것은 목표 설정과 계획이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규칙 속에서 내 페이스대로 움직이는 것은 좋은 결과로 보답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무사히 대학교도 입학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원하던 대학교 전공의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길을 선택했던 이유와 의미가 목표였던 저에게 그 현실이라는 벽은 긴 방향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시작은 순조롭지 못했지만 여러 전공 활동과 교양수업, 그리고 수업에서 만나는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 편입생, 교환학생을 보며 현실만 타하며 방향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학년 UI/UX 수업으로 웹 디자인을 접하며 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지만 해당하는 학부의 커리큘럼 부족으로 더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학원을 알아봤고 웹 디자이너 양성과정에서 코딩은 또 다른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백엔드 개발자인 친오빠의 도움과 조언으로 다소 생소했던 웹 퍼블리셔가 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6개월의 공부 끝에 웹 에이전시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배우기 위해 들어갔던 첫 회사는 제게 평생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좋은 선임과 좋은 동료들 만나 즐겁게 일하며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었기에 제 일을 사랑할 수 있었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임과 함께 공부하고 디자이너와 개발자와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바쁜 회사에 제 몫을 하고 싶어 퇴근 시간 이후에도 수정 건과 유지보수 건을 도맡아 하며 선임의 소스를 따라 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은 프로젝트에 일찍 투입되게 만들었고, 프로젝트의 공동작업에서도 부족함 없이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또, 지속적인 공부와 피드백으로 나온 방법을 함께 공유한 것이 이후 자체 템플릿을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 연구하며 서로 피드백해주는 것에 적극적입니다. 이전부터 개발, 기획팀과 마찰이 있던 디자인팀과의 사이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고 디자이너와 그들의 결과물을 존중했습니다. 사내 막내였던 제가 디자이너를 존중하자 회사 분위기도 같은 방향으로 변했고, 감사인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서로 적극적인 피드백과 협업은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올려주었고 시간 단축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의 수행과 회사계정 달력에 업무기록을 남기는 일은 프로젝트 수행 시 저만의 효율적인 루틴을 만들 수 있었고, 프로젝트 공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 선임의 퇴사 후 혼자서 모든 프로젝트와 유지보수 건을 진행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차에 접어들며 개인적인 방향성 맞지 않아 회사와의 아쉬운 고별을 했습니다. 퇴사 후 가장 하고 싶었던 운동과 공부에 전념하였고 영상 플랫폼들을 보며 JavaScript를 독학하여 포트폴리오에 완성했습니다.

앞으로도 JavaScript와 vue.js, react.js 등의 라이브러리와 캔버스를 지속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방향과 성향이 잘 맞고 잘 녹아들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회사에 지원하였습니다.
